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제1회 인권연극제 참가작
2014. 10. 25. ~ 26. 소리아트홀 공연

마르하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제1회 인권연극제 참가작

2014. 10. 25. ~ 26. 소리아트홀 공연

■ 등장인물

사라 유세프 : 30대 중반, 교사

아흐메드 아신 : 10대 소년

아흐메드의 엄마

마르하 아신 : 20대 중반, 아흐메드의 누나, 만삭의 임산부

아셈 : 마르하 아신의 남편, 현재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

알리아 다르위시 : 70대 할머니

자밀라 다르위시 : 알리아 다르위시의 손녀

레일라 칼리드 : 대학생

마흐무드 칼리드 : 레일라 칼리드의 남동생, 10대 후반

노암 : 남자, 이스라엘 군인

아일레트 : 여자, 이스라엘 군인

■ 출연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들

- 새라, 덩야핑, 호밀, 기린, 냐옹, 반다, 승은(등장 순)

■ 연출

허혜경

■ 조명

백동훈

■ 차례

I. 대본	4
II. 인물 상세 설명 (등장인물 스스로가 말하는 자신의 이야기)	45
III. 조명	59

I. 대본

#1

사라: (객석 전체를 천천히 둘러본 후) 오늘은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슬픈 소식을 하나 전해야 할 것 같다.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지난 금요일 시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 아셀이 이스라엘 군의 총에 맞아 그만 신의 품으로 돌아갔다. (후후)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늘 아침까지도 참 고민스러웠어. 선생님은 오늘 오후에 아셀의 짐을 챙겨 아셀의 부모님께 가져다 드릴 거야. 아셀과 친하게 지낸 친구들 많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수업 끝난 후에 교무실로 와줬으면 좋겠다. 내일은 수업을 일찍 마치고 모두 장례식에 참석할 거야. 그러니까 미리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알겠지? 애들아, 우리 잠시 아셀과 그동안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묵념하도록 하자. (묵념)

학생1: 선생님, 아흐메드는요?

사라: 그래, 아흐메드 소식도 궁금하지? 선생님이 교실 들어오기 전에 아흐메드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다행히 오늘 오후에 풀려날 것 같아.

학생들: 다행이다

사라: 선생님은 여기 앉아 있는 너희 한명 한명이 너무도 대견하고 고마워. 우리 힘들겠지만 절대 희망을 잃지 말자. 알았지?

학생들: (힘없는 목소리로) 네...

사라: 자 그러지 말고, 우리 기운내자. 알았지?

학생들: (조금 기운을 내서) 네~

사라: 그럼, 수업 시작하자.

#2

아흐메드가 무대 뒤에서 등장해 조용히 무대 앞까지 걸어 나온다. 멍들고 부은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사정없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히 인터뷰를 시작한다.

기자1: 이름과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흐메드: 열여섯 살, 아흐메드 야신입니다.

기자2: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3: 잘 보이게 고개 좀 들어주시죠.

아흐메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구타당했습니다.

기자4: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흐메드: 이스라엘 군인 세 명이서 저에게 달려와 때리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다가 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기자1: 저항하진 않았습니까?

아흐메드: 눈을 가리고 수갑을 채워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2: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걸 알렸나요?

아흐메드: 말할 기회도 없었지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2: 끌려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흐메드: 어느 방에 들어가서야 눈가리개를 벗겼는데, 책상과 의자밖에 없는 방이었고 거기서도 계속 맞았습니다.

기자3: 취조도 받았나요?

기자4: 어떤 내용이었죠?

아흐메드: 처음에 아랍어를 하는 군인이 잠깐 들어와서 시위에 왜 참가했느냐, 어느 조직에 소속돼 있냐 묻더니 같이 있던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다시 때렸습니다.

기자1: 시위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아흐메드: 가자 침공을 규탄하는 시위였습니다.

기자1: 어느 조직에 소속돼 있습니까?

기자2: 하마스라는 설이 있던데요.

아흐메드: 그냥 친구들끼리 나간 겁니다.

기자3: 같은 반 친구 아셀이 죽은 사실은 알고 있나요?

아흐메드: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기자4: 심경이 어떻습니까?

아흐메드: 후... 아셀이 신의 품속에서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기자2: 혹시 그 친구가 주동자입니까?

아흐메드: 주동자 따로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나간 겁니다.

기자1: 친구가 죽었는데 죄책감은 안 느끼나요?

기자3: 어쩌다 그 친구만 죽었죠?

아흐메드: ... 이만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아흐메드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흐메드: 엄마.

엄마: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다가 뛰어나오며) 아흐메드!

모자가 부둥켜안는다.

엄마: 얼굴이 이게...

아흐메드: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엄마한테는 다 말해도 돼. 다른 데는, 더 다친

덴 없고?

아흐메드: 네, 얼굴만 좀 다친 거예요.

엄마: (얼굴을 어루만지며) 아이고, 그 나쁜 놈들이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아흐메드: 울지 마세요.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엄마: 병원은? 그놈들이 병원은 보내주디?

아흐메드: 아침에 의사가 와서 봐 주고 갔어요.

엄마: 그걸로 안 되지. 내일 엄마하고 같이 병원 가자, 응?

아흐메드: 네.

엄마: (주저앉으며)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다. 이 엄마가 못나서. 우리 아들 고생하는데 아무 것도 해 주지 못하고.

아흐메드: (몰래 눈물 닦고 엄마를 일으키며)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죄송해요.

엄마: 네가 왜 죄송하니 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끌어안고 있다가) 그 래 밥은, 밥은 먹었어?

아흐메드: 점심 먹고 아무 것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 그래 그래. 엄마가 너 좋아하는 필라펠이랑 후무스 잔뜩 해 댄어. 어서 먹자.

아흐메드: 좀 씻고 나서 먹을게요.

엄마: 그럴래? 그럼 따뜻한 물 받아서 조심조심 씻고 나와. 엄마가 맛있는 밥 차려놓을게.

아흐메드: 네, 엄마.

아흐메드는 주방으로 가는 엄마 뒷모습을 잠시 바라본 후 자기 방으로 천천히 이동. 방구석(무대 맨 앞 중앙)에 도달해서야 무너지듯 주저앉아 운다.

아흐메드: 씨발... 씨발... 씨발 새끼들!! 아셴... 아셴... 왜 나만. 왜 나만! 아셴!!

전화벨이 울리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는다. 처음엔 아흐메드의 통화소리만 들리다가 아흐메드는 퇴장하고 마르하가 등장하면서 마르하의

통화소리만 들린다.

아흐메드: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여보세요. 누나. 나 괜찮아, 집에 잘 왔어. 티비 나온 거 봤어? 그냥 얼굴만 좀 맞은 거야. 나 멧집 좋은 거 알잖아. 누나는, 누나 몸은 좀 괜찮아? 애기는? 헤헤 조카 빨리 보고 싶다. (퇴장하며) 오긴 뭘 온다고 그래. 매형 내일도 출근해야지.

마르하: (등장하며) 왜 누나 걱정을 해. 그리고 매형은 일보다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내일 꼭 같게. 내일 보자. 응?

#3

아쌌: (무대 밖을 바라보며) 아오, 저 빌어먹을 이스라엘 놈들. 저놈의 체크포인트! 다 폭파시켜버리든가 해야지. 4시간이 뭐야 4시간이! (무대 안으로 들어오며) 여보 나왔어.

마르하: 여보 왔어? 피곤하지?

아쌌: 어 뭐 조금. 먼저 자지 그랬어.

마르하: 당신 기다렸지. 가방 이리 줘. 내가 할게.

아쌌: 아니야. 내가 할게.

마르하: (의자에 앉으려 하며) 그럼 나 여기 앉게 좀 도와줄래?

아쌌이 마르하가 의자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다시 짐을 푼다.

마르하: (잠시 땀을 들였다가) 여보, 오늘 우리 아흐메드가 나왔대.

아쌌: (쳐다보지는 않고) 아 처남 나왔대? 잘 났네. 당신 걱정 많이 했잖아.

마르하: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내일 아흐메드한테 다녀오면 안 될까?

아쌌: 내일? 에이. 내일도 일 나가야지.

마르하: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될까? 아흐메드는 자꾸 괜찮다는데 그러는 게 더 걱정돼. 내가 이런 몸으로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응?

아쌌: 에이.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일 빠지면 다음 달에 취직하는 거 힘들어져.

마르하: 나도 알지. 그래도 당신 지난 몇 달간 하루도 안 쉬고 일했는걸. 당신도 아흐메드 걱정된다며.

아쌌: 두 달만 잘 보이면 나 공장 취직도 할 수 있어. 그때 되면 우리 애도 나올 거잖아. 그때 정식 휴가 내서 가자.

마르하: 두 달 뒤에 가자고? 당신 저번 명절에도 다음에 가자 그래서 나 혼자 갔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알아?

아쌌: 그럼 이스라엘 놈들이랑 우리랑 쉬는 날이 다른데 어떡해!

마르하: 다른 사람들은 당신처럼 일만 하지는 않아!

아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밖에 못 버는 거 아냐!

마르하: 그것밖에? 그럼 당신은 대체 얼마나 벌려고 그래? 그냥 우리 세 식구 오순도순 살 정도면 되는 거 아냐?

아쌌: 여보, 애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양육비에다 교육비에다. 그러다 대학 보내고, 나중에... 나중에 우리 애 외국에서 살게 하려면 지금부터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마르하: 뭐, 외국? 유학이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아쌌: 그래 외국! 애 생겼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거야. 판소리 하지 마.

마르하: 아니 팔레스타인이 어때서? 우리 여기서 잘 살아보기로 했잖아. 옆집 애들 봐봐. 대학 다니고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도 벌고 집에도 보태고. 열심히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애도 그렇게 자랄 수 있어.

아쌌: 거 철없는 소리 하지 마. 밖에 봐봐. 대학 나온 놈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그놈들 지금 뭐해? 길거리에서 물담배나 피고 한량처럼 살잖아! 이 나라 실업률이 얼마지 몰라?

마르하: 그럼, 외국 가서 살면 뭐가 달라져? 거기 가도 아랍 사람이다,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하며 차별 받아.

아쌌: 그래도 여기만 아니면 돼!

마르하: 여보, 나 사실 당신 출근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옛날에 우리 집 올리브 농장 다 헤집어 놓은 게 떠올라서. 당신이 그때 그 이스라엘 놈들처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아쌌: (마르하와 마주 서며) 그러니까 우리 외국으로 가자, 응? 여기 있으면 당신도 자꾸 그때 생각 날 것 아니야? 우리 애는 그런 일 안 당하게 해야 하고. 외국으로 가서 새출발하자.

마르하: 새출발이라니. 당신 양심의 가책도 못 느껴? 당신 지금 하는 일 그거... 나 같은 사람들 또 만들어서 이스라엘 놈들 공원 지어주고 집 지어

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 우리끼리 잘 살고 싶어?
당신 아버님이나 형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쌌: 아버지, 형? 미안? 그 두 사람 때문에 우리집 풍비박산 난 것 몰라? 우리 형 봐봐. 그놈의 집회 나간다고 감옥만 들락날락하다가 지금까지 결혼도 못했지, 취직도 못했어. 지금 내가 정착촌에서 일해 번 돈으로 먹고 산다고!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 큰형이지! 솔직히 처남도 그래. 집회 나가서 돌 몇 개 던지면 이스라엘 놈들이 겁이라도 먹어? 체크포인트만 늘어난다고. 나 봐. 오늘도 4시간이나 기다렸어. 처남은 제발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래.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마르하: 당신도 이스라엘 놈들이랑 똑같아. 다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뭘 위해 살아가는지 보이지도 않는구나? 당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지?

아쌌: 그게 왜 나 혼자야. 다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지! 아니, 그만 하자. 지금 벌써 10시야. 나 4시간도 못 자고 다시 나가야 된다고.

마르하: 당신... 변했어.

아쌌: 변한 거 없어. 나 먼저 들어가 잘게.

마르하: 당신 변했다고.

아쌌은 마르하를 무시하고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마르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아니야.

아쌌: (무대 밖에서 말소리로만) 여보 나 자야 돼. 불 좀 꺼 줘.

마르하가 불을 끄고 다른 방향으로 퇴장한다.

#4

암전 속 목소리들: 이게 무슨 소리지? 알리아 할머니 네 집인가?

무대 뒷벽을 스크린으로 가옥파괴 영상이 재생된다. 영상이 끝나면 집기를 손에 든 6명의 배우가 무대 양 끝으로부터 걸어 나와 차례로 바닥에 쓰러진다. 음악이 나오면 서서히 몸을 일으켜 파괴된 집과 방치된 집기들의 혼을 나타내듯 천천히 무대를 돌아다니며 마임을 시작한다.

마임 배우들이 차례로 퇴장하면 알리아 할머니가 가방을 든 채 등장한다. 급하게 꺼내졌으나 챙겨지지 못한 채 망가지고 널브러진 집기들과 건물 잔해들을 응시하다가 무대 조명이 밝아지면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가로짓는다.

알리아: (국자를 집으며) 이거 끝애가 다 까졌구먼. 요래요래 만지면 다시 쓸 수 있겠다. (가방 속에 챙겨 넣고 몇 발자국 걷다가 이브릭 주전자를 집어 든다.) 으잉? 이거 마나르가 터키에서 사다준 거 아녀? 다 찌그러졌네 그려. (주전자 안을 후 불고 먼지가 많이 나오는 양 고개를 빼며 툼툼 거린다.) 멀쩡하구먼. 왜 안 챙겼디야.

자밀라: (해맑게 달려오며) 할머니! 할머니!

알리아: 아이구. 자밀라 아녀? 여기 오지 말라는데 왜 왔어!

자밀라: (분주히 이곳저곳 살펴보며) 나도 찾을 거 있어서 온 거야. 그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기타. 나 열 살 생일 때 아빠가 사준 거란 말이야. 꼭 찾아야 되는데.

알리아: 아 그 흰색에 알록달록 그려진 기타?

자밀라: (홀쩍이며) 응! 나 그제도 못 찾고 어제도 못 찾아서 오늘은 꼭 찾아야 돼. 할머니 못 봤어?

알리아: 아이구. 할머니도 방금 와서 못 봤어. 울지 말고. 할머니도 같이 찾아볼 테니까 찬찬히 해. 응, 네 방 있던 데 가서 찾아봐봐.

자밀라: 알았어. 내 방이면 이 쪽인가?

알리아: (자밀라를 바라보며) 에구. 쫓쫓쫓. (다시 집기 찾는 일에 집중하며) 응? 이거 흑시..? (겉보기에 평범한 상자를 주워 뚜껑을 열며) 아이구. 맞구만 맞아! 찾았다! 야야, 자밀라야, 이리 와서 할머니 이거 좀 해다오.

자밀라: (쳐다도 안 보고 듣는 등 마는 등) 응? 뭐?

알리아: 이게 할미가 너보다 어릴 때 우리 오라버니가 주신 목걸이여. 아, 어여 와서 좀 해줘! (자밀라가 목걸이 걸어주려 한다.) 이스라엘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놈들이 금붙이도 다 뺏어갔어. 근데 할미가 이거는 뺏쓰 속에 잘 숨겨가지고.

자밀라: (킁킁 대며) 뺏쓰?

알리아: 그래서 이거 하나 건진 거여.

자밀라: (목걸이에 코를 갖다 대더니 킁킁 대며) 어쩐지 할머니 목걸이에서 똥냄새 나!

알리아: 아니 지는 아무데나 똥 똥 싸고 다니던 게. (목걸이를 매만지며) 에휴. 다시는 빼지도 말아야지!

자밀라: (다시 자리로 돌아와) 어? 어? 맞다! 찾았다! 할머니, 기타 찾았어!

알리아: 응? 찾았어? 에구 잘 됐구먼!

자밀라: (조심스레 케이스를 열어보고는 절망한듯) 어? 어? 할머니, 기타가 부서졌어.

알리아: 응? (다가와 기타 줄을 튕겨보고는) 소리 잘만 나는구먼 뭘.

자밀라: (울면서)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리만 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아빠가 소중한 간직하랬는데.

알리아: (자밀라의 등허리를 쓸어내리며) 울지 마아. 그 이모 옆집에 딴따라 아저씨 살잖아. 그 아저씨한테 고쳐달라고 하면 돼야.

자밀라: 그 아저씨가 어떻게 고쳐!

알리아: 다 고칠 수 있어야. 아 찾았으면 좋은 일이지 뭘 계속 울고 있어? (스카프로 자밀라의 얼굴을 씻기며) 울지 마, 울지 마. 코 풀어. 팽!

자밀라가 마음을 추스르고 기타를 치며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계속 잔해더미를 뒤진다.

알리아: (뒤집힌 액자를 주워 보더니) 잉? 이거 우리 영웅 아들이구먼! 야 자밀라야. 니 아빠 사진 찾았다.

자밀라: 응? 아빠 사진? (반갑게 달려와 사진 보더니) 에이 아빠 아니야. 이거 할아버지잖아. 할머니는 맨날 헛갈려. (다시 자리로 돌아가 기타를 친다.)

알리아: 아빠 아니여? 할아버지여? (자세히 보더니) 아이구 맞구먼. 여보 오! 당신은 여전히 젊고 곱구려. 나만 혼자 이렇게 늙고 살찌고. 몸이 어디 성한 데가 없수. (잔해들을 훑어보고는) 여보, 내 미안하오. 당신 살던 집이 다 부서졌수. 우리 난민촌 나와서 이 집 샀을 때 당신 우리 큰 애 낳았을 때 보다 더 좋아했잖수. 그런데 그게 다 부서졌구려. 당신이 심꿨던 올리브랑 무화과 나무도 그놈들이 다 뽑아갔수. 그래도, 내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수. 내가 그놈들 좀 때려줬수. 그래 가지고 그거 말리느라고 자밀라 오빠 마제드가 잡혀갔어. 으응 걱정하지 마슈. 오늘 나온다고 애들 엄마가 지금 데리러 갔어. 아니 뭐 팔레스타인 젊은이가 이스라엘 감옥에 끌려가는 게 뭐 대순가? 걱정하지 마슈. 내가 올리브랑 무화과도 다시 다 심꿔놓고 집도 다시 다 지어놓고, 아 그렇지, 하이파, 당신 못 돌아간 우리 고향 하이파 땅도 밟아서 그 흙 챙겨서 갖고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슈. 응? 기다리슈. (사진을 소중하게 옷 주머니 안에 챙기고는 생각났다는듯 자밀라를 쳐다보며) 응? 야 자밀라야. 너 여태 안 가고 뭐혀. 기타 찾았으면 얼렁 가봐. (달래듯이) 오늘 마제드 오빠 나온다고 엄마가 데리러 갔잖여. 이모 저녁밥하는 거 도와줘야지. 그리고 딴따라 아저씨한테 기타 고쳐달라고 혀. 언능 딱 그치고, 응?

자밀라: (여전히 훌쩍이며 기타를 챙기고 일어서며) 알았어.

알리아: 울지 마, 울지 마. (자밀라 엉덩이에 흠을 털어주며) 어여 가! 조 심해서 가!

자밀라: 할머니도 빨리 하고 와. (퇴장한다.)

알리아: (자밀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예구 쫓쫓쫓. (다시 잔해더미를 뒤지다 선글라스를 발견하자) 응? 이거 우리 마제드가 쓰는 썬글라슨가 뭔가 하는 거 아녀? (꺼보고는) 으응. 잘 보이는구먼. 마제드 갖다줘야긔다. (가방 안에 넣고 다시 뒤지다가 숟가락을 주워 옷에 문질러 가방에 담고는) 아참, 내 드레스는 어디 갔다? 그것을 찾아야 하는디. 응? 아이쿠 이런. 이거 구만, 여겼구먼! 예구 드레스가 다 드러워졌네. 옷싸개는 어디 갔다?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그래도 찾았다...

레이라: (하룻길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한동안 쓸쓸히 쳐다보다가) 알리아 할머니!

알리아: 응? (눈물을 몰래 훔치고는) 아이고 레이라. 콤퓨타 학교 다녀오는 거?

레이라: 네.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기 올리브 나무랑 무화과 나무... 다 뽑혔네요.

알리아: 응, 괜찮여. 내가 다시 다 심굴 거여.

레이라: 할머니 텃밭도 다 망가지고. 세탁기도 못 건졌나 봐요.

알리아: 급하게 꺼내다가 부서졌지 뭐야. 근데 괜찮여! 우리집 영웅 가족 이라고 마을에서 다 도와주잖여. 걱정하지 마.

레이라: (드레스를 보더니) 우와 이게 뭐예요? 너무 예뻐요.

알리아: 응, 이쁘지? 이게 내가 시집을 때 입었던 옷이여.

레이라: 우와. (할머니 몸에 대보더니) 우리 할머니 디게 이쁘셨겠다.

알리아: (활짝 웃으며) 그럼. 이뻐지 이뻐어.

레이라: (드레스를 자세히 살펴보며) 이거 자수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직접 놓으신 거예요?

알리아: 이게 다 나 시집 간다구 우리 어머니가 놓아주신 거여. 근데 이 령게 더러워졌네. 어쩐다...

레이라: (계속 드레스를 살펴보며) 할머니 이거... 제가 빨아다가 수선해서 갖다 드릴까요?

알리아: 레이라가?

레이라: 여기 뜬어진 데 좀 꿰매고 자수 몇 군데만 다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알리아: 그래? 그럼 다시 깨끗해질까?

레이라: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알리아: 그럼 그래줄터? 내 레이라 솜씨는 잘 알지. 예구, 고마워라 고마워. 레이라 부모님은 월매나 든든하시겠어. 이렇게 훌륭한 딸을 뒤서.

레이라: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알리아: 아참 레이라. 레이라도 언능 결혼해야지?

레이라: 에이. 팔레스타인에 어디 괜찮은 남자가 있어야 말이죠.

알리아: (조금 생각하더니) 하긴. 그건 그러. 그리고 레이라 공부부터 마쳐야제.

레이라: 네. 이제 일 년 남았어요.

알리아: 그럼 일 년 있으면 우리 고을에 교수님 나오는 거여?

레이라: 그러면 좋겠는데... 할머니,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알리아: 당연하지! 레이라는 우리 고을에서 쥘로 똑똑하잖여. 우리 고을의 자랑이여. 내가 아주 기대가 커!

레이라: 열심히 할게요.

알리아: (일어나려 하며) 이제 슬슬 돌아가야겠다.

레이라: 제가 가방 들어드릴게요.

레이라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후 부축하며 천천히 걷는다.

레이라: 할머니 아직도 무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알리아: 응. 노상 똑같혀. 집은 이렇게 다 뿌사졌는데 늙은 몸뚱이 고친다고 내일 병원 가.

레이라: 그래도 병원은 가셔야죠. 병원 누구랑 가세요?

알리아: 아 그놈들이 통행증을 안 쥐가지고. 나 혼자 가.

레이라: 그러시구나. 마제드는 잡혀갔다면서요?

알리아: 응. 오늘 나온다고 애들 엄마가 데리러 갔어. 걱정하지 마.

레일라: 정말 다행이네요.

알리아: 다행이구 말구. 알라께서 보살펴 주신 게지. 레일라 부모님은. 건강하시구?

레일라: 네, 잘 계세요.

알리아: 그러, 건강이 제일이여. 그 마흐무드는. 요새도 노상 그러?

레일라: 할머니 저 마흐무드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알리아: 아니, 가가 참 착하고 예의 발랐는데 요즘 왜 그런다. 모스크에도 오지를 않아.

레일라: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알리아: 에휴. 레일라가 마음고생이 많구먼...

팝송이 크게 울린다. 마흐무드가 건들거리며 무대 앞으로 걸어가 마치 거울을 보듯 머리를 만지기 시작한다. 레일라가 무대 뒤에서 등장해 그런 마흐무드를 한심하단 듯 쳐다본다.

레일라: 마흐무드, 소리가 너무 커! (마흐무드가 듣지 못하자 더 큰 목소리로) 마흐무드, 소리가 너무 크다고!!

레일라가 결국 오디오를 끈다.

마흐무드: 아 또 왜 그래.

레일라: (가방을 풀어 채점 아르바이트용 시험지 꾸러미를 꺼내며) 마흐무드, 오늘 일찍 왔네? 오늘 올리브 짜러 가는 거. 알지?

마흐무드: (계속 거울을 보며) 아니 모르는데? 나 약속 있어.

레일라: 마흐무드, 누나랑 약속했잖아. 어제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꼭 간다며. 오늘도 못 짜면 이거 쩌내 난단 말이야. 못 먹고 다 버릴래?

마흐무드: 내가 다 먹으면 되겠네. 먹기 싫은 사람 혼자 가든지.

레일라: 10킬로나 되는 걸 내가 혼자 어떻게 들어.

마흐무드: 평소엔 무거운 거 잘만 들더라. 아 몰라. 누나 혼자 가.

레일라: 마흐무드, 너 요즘 공부는 좀 하니? (마흐무드가 무시하자) 너 문제집 위에 먼지가 쌓였더라.

마흐무드: 누나 나 감시하나?

레일라: 네 방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거야.

마흐무드: 그럼 청소나 똑바로 할 것이지.

레일라: 마흐무드, 너 정말 왜 그래. 누나랑 오늘 얘기 좀 하자.

마흐무드: 내가 뭐.

레일라: 너. 네가 재수 하고 싶다면. 그래서 누나가 과외 두 개나 더 하고, 맨날 이 채점 알바에. 넌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마흐무드: 누나 같은 범생이가 나 같은 인생을 뭘 알겠어.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지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그리고 맞아! 내가 재수 한다 그랬다. 근데 그때는 하고 싶었고 지금은 하기 싫어. 그래서 뭐!

레일라: 마흐무드!

마흐무드: 그리고 좀 솔직해져 봐. 그 재수, 나만 원하는 거야? 동생이 고졸인 게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등 떠민 거 아냐?

레일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네가 걱정돼서 그래. 맨날 길거리에서 담배나 피우고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휘파람이나 불고. 너 정말 모르겠어? 그렇게 아무 꿈도 희망도 없이 사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삶이야. 언제까지 그렇게 날파리처럼 살 거야?

마흐무드: 나 날파리 맞아. 근데 나처럼 사나 너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사나 여기서 똑같이 하루살이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도 좀 나처럼 인생을 즐겨 봐.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서 쓸데없는 공부 나부랭이나 하며 시간낭비하지 말고. 너나 공부 제대로 해, 인생공부. 나는 돈 많은 외국여자 만나서 이 지긋지긋한 팔레스타인 뜰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레일라: 너 영어도 못하잖아.

마흐무드: 사랑에 말은 무슨 말이 필요해. 바디랭귀지가 있잖아?

레일라: 마흐무드, 왜 이렇게 뼈뺏하게만 굴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잠시 생각하더니) 너... 혹시 미대 못 간 것 때문에 아직도 이러는 거야?

마흐무드: (머리 만지던 걸 멈추고 레일라를 노려보며) 미대? 씨발 너 지금 미대라고 했냐? 그래! 미대 못간 것 때문에 아직도 이렇다. 네가 물감 사 줄 돈 없다며! 내 꿈 포기하라며!! 미대 가지 말라며!!! 그래서 흙바닥에 그림이나 그리고 저 빌어먹을 장벽에 벽화나 그리면서 이려고 산다. 꼴 보기 싫으면 누나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 줄까? 내가 저 집회 나가서 총에 맞아 피를 질질 흘리며 길거리에서 뒤흔겨줘야 네가 편하겠지?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지?

레일라: 너 도대체가... 생각해 봐. 우리집 형편에 널 어떻게 미대에 보내.

마흐무드: 형편! 형편! 그 놈의 형편 소리 좀 그만 해. 지긋지긋하니까.

레일라: 그래, 내가 미대 가지 말라 그랬어. 아빠가 너 미대 못 보낸단 말 하면서 무너질까봐. 그걸 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말했어. 네가 그림 그릴 때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내가 몰라? 하지만 네가 미대 가면. 그럼 네 동생들은 어찌고? 너는 왜 늘 네 생각만 해!

마흐무드: 들어만 가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 했잖아. 알바도 하려고 했어. 왜 내 말은 안 믿어주고!

레일라: 나는 라말라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나왔는데도 포기했어. 겨우 이 시골 대학 다니는데도 알바를 몇 개씩 하는데. 넌 내 인생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는 중학교 때부터 쉬어 본 적이 없어. 새벽부터 공

부하고 학교 끝나면 동네 꼬마들 모아 과외하고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집안 일에! 대체 내 꿈은!

마흐무드: 누가 그렇게 살래? 대학교수인지 뭔지 하는 그 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레일라: 내 꿈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마흐무드: 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너 아까 뭐라 그랬지? 이스라엘이 원하는 삶이 나 같다고? 웃기지 마. 내가 아니라 너 같은 삶이야. 평생 이루지도 못할 꿈꾸느라 차곡차곡 희망을 쌓다가 그 꿈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삶이야. 그걸 몰라? 하나 더 이야기해 줄까?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절망감, 보이지? 누나는 이 절망감의 백 배, 천 배, 아니 평생 헤어나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될 거야. 내가 널 알지. 그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삶이야!!

마흐무드가 뒤돌아 성큼성큼 간다.

레일라: 마흐무드!

마흐무드가 멈춰 선다.

레일라: (흐느끼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네가 좀 알려 줘. 나

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신에게 기도를 해. 내 꿈을 포기 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마흐무드가 고개를 반만 돌려 누나를 안쓰럽게 쳐다보고는 퇴장한다.

#6

체크포인트에서 아일레트와 노암이 검문 준비를 한다.

노암: 아일레트, 이거 좀 도와줄래? 내가 뒤에서 올릴 테니까 거기서 봐 줘.

노암이 무대 뒤로 가서 검문 시설(장벽 현수막)을 설치한다.

아일레트: 오늘은 빨리 좀 끝내자 제발.

노암: 알았어. (당기다가) 됐어?

아일레트: 더! 더!

노암: 됐어?

아일레트: 제대로 좀 해라. 이 일 한 두 번 하나?

노암: 그래그래. 됐어?

아일레트: 빨리 나와 이제. 여기 구석 좀 더 보고.

노암: (무대로 돌아와 살펴보고는) 이야. 아일레트. 네가 도와주니까 진짜 빨리 끝났다. 허허.

아일레트는 신경도 안 쓴 채 검문 서류를 점검하고 노암은 그 옆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목을 가다듬고 다가간다.

노암: 저기, 아일레트.

부른 사람이 노암임을 알고 아일레트가 인짱은 표정을 짓는다.

노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아일레트: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왜.

노암: 아니, 너랑 나랑 같이 근무한 지도 오래 됐는데. 둘이 밥이나 먹으며 이야기 좀 할까 해서. 저기 시내에 포카치아라고 괜찮은 식당이 있는데, 이따 우리 같이...

아일레트: 포카치아. 거기 맛있어.

노암: 아... 너 거기 가 봤구나. 그럼 그 옆에 괜찮은 맥줏집이...

아일레트: 빨간 간판?

노암: 응응!

아일레트: 거기도 별로.

노암: 아... 너 되게 많이 다니는구나. 그럼 너 레이디가가 좋아하지? 이번 주말에 레이디가가 공연을 하는데 나한테 표 두 장이 생겼네? 어때, 같이 갈래?

아일레트: (시선을 서류에서 노암에게로 돌리며) 아 내가 좋아하는 레이디가가? 근데 어떡하지? 나 이제 안 좋아하는데? (노암에게서 멀어지며) 오늘 대기 진짜 많네.

아일레트는 퇴장하고 노암이 주머니에서 공연표 두 장을 꺼내 찢어 버린다.

노암: 야! 거기 남자들 다 웃통 까!!

무대에 대기 줄이 생긴다. 무대 위 5명 중 가장 앞에 선 사라가 노암 앞으로 간다.

노암: 통행증. 신분증. (확인 후) 사라 유세프. 어디 가세요?

사라: 학교 갑니다.

노암: 학교는 왜?

사라: 출근하려고요.

노암: 몇 시에 돌아와요?

사라: 5시요.

노암: 잠깐만, 이 학교. 저번에 집회 나갔던 학교 아니에요? 학생 한 명이 난동피우다 죽었는데. 이름이 뭐더라... 아셀인가?

사라: 그게 왜요.

노암: 맞아 아니야? 대답해요.

사라: 저희 학교 학생 맞습니다.

노암: 선생님이 주동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알고 그런 텔 나가.

사라: 아닙니다.

노암: 아니야, 확인 좀 해야겠으니 저기서 대기해요.

사라: 저 지금 출근해야 돼요!

노암: 대기하세요. 다음!

사라가 대기구역으로 이동하고, 알리아가 노암 앞에 선다.

노암: 할머니, 통행증이랑 신분증이요. (확인 후) 알리아 다르위시, 본인 맞아요?

알리아: 응, 나여.

노암: 어디 가세요?

알리아: 병원 가는 거.

노암: 어디 병원이요.

알리아: 아, 알쉬파 병원 가는 거여.

노암: 언제 오시는데요.

알리아: 거그 10시 예약이라고 써 있잖여.

노암: 예약시간 말고 언제 돌아오시냐고요.

알리아: 아니 그걸 의사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어?

노암: 병원엔 왜 가세요?

알리아: 무릎이 아파서 가는 거.

노암: 무릎? 여기까진 어떻게 오셨어요?

알리아: 버스 타고 왔지.

노암: 한 번 걸어보세요.

알리아: 응?

노암: 무릎이 아프시다면서요, 걸어보시라고요.

알리아: 아니 저기 버스 정류장에서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거!

노암: 무릎이 아프다면 어떻게 걸었어요? 병원 예약 확인해 봐야겠으니 대기하세요.

알리아: 뭐?

노암: 아 대기하시라고요.

알리아: 거그 통행중에 다 써 있잖여.

노암: 다음!

알리아: 아니 거그 써 있는데...

사라: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요즘 검문이 심해져서 그래요.

알리아: (대기구역으로 이동하며) 아니 저 시부털 놈의 새끼가.

레이라가 올리브 자루를 들고 노암 앞에 선다.

노암: 신분증이랑 통행증. (확인 후) 레이라 칼리드 맞아?

레이라: 네

노암: 어디가?

레이라: 올리브 기름 짜러요.

노암: 몇 시에 돌아와?

레이라: 7시요.

노암: (올리브 자루를 총으로 건드리며) 이거 올리브 맞아?

레이라: (올리브 자루를 펼쳐 보이며) 올리브 맞아요!

노암: 그 위에만 보고 어떻게 알아?

레이라: (손으로 올리브를 휘저으며) 보세요, 올리브잖아요.

노암: 엇어 봐.

레이라: 네?

노암: 안에도 봐야 하니까 엇어 보라고.

레이라: 그럼 올리브에 흙 묻잖아요. 다 씻어 온 건데...

군인: 아 진짜! (올리브 자루를 총으로 헤집어 놓는다.)

레이라: 으윽...

레이라가 바다에 흩어진 올리브를 주워 담고 깨진 올리브를 골라내려 한다.

노암: 저기 가서 대기해! 더 확인할 거니까.

레이라가 대기구역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올리브 자루를 든 마흐무드가 노암 앞에 선다.

노암: 너 남자 아냐? 통행증이랑 신분증. (확인 후) 마흐무드 칼리드. 맞네 남자. 넌 왜 옷통 안 짚어. 대답 안 해? 어쭙, 해 보지는 거지. 어디가?

마흐무드: 누나랑 올리브 짜러 갑니다.

노암: 누나랑 올리브 짜러. 몇 시에 와?

마흐무드: 7시요.

노암: 둘이나 가야 되냐?

마흐무드: 무거워서 혼자 다 못 듭니다.

노암: 올리브가 왜 무겁지? 수상한데? 누나인 건 맞아? (마흐무드가 대답하지 않자) 또 또 대답 안 한다. 너 옷통 벗고 뒤돌아서. 각지 끼고 손 머리 뒤로. (마흐무드가 순순히 따르자 총구로 몸 이곳저곳을 툭툭 친다. 대기 구역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저 앞에 벽돌 보이지? 손 그대로 거기 위로 올라가. 거기서 떨어지면 넌 오늘 통과 못 할 줄 알아.

레이라: (대기구역에서 달려오며) 왜 그러세요. 총으로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노암: 그럼 군인이 총을 들지 뭘 들어. 저리 안 가?

레이라: 제발 이러지 마세요.

노암이 총을 들이대자 레이라가 경직돼 물러선다.

마흐무드: 누나는 가 있어!

노암: (히죽거리며) 오호. 너네 뭐하나? 완전 애뜻한데? 진짜 누나 맞아? 애인 아니야?

레이라: 신분증 보셨잖아요.

노암: 제자리로 안 가?

마흐무드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자 노암이 벽돌을 발로 차 떨어뜨린다.

노암: (마흐무드에게 통행증과 신분증을 넘기며) 대기!

노암이 레일라와 함께 대기구역으로 이동하고 반찬 가방을 든 만삭의 마르하가 노암 앞에 천천히 선다.

노암: 통행증이랑 신분증. (마르하가 굶뜨게 굴자) 아줌마! 통행증이랑 신분증! (확인 후) 마르하 야신. 어디 가지?

마르하: (호흡이 가파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로) 친정... 친정예요.

노암: 뭐? 제대로 말해. 어디 간다고?

마르하: 친정...

알리아: 저거 산달이 다 된 것 같으니.

사라: 저 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세를 보니까... (노암에게) 저기요!
지금 애가 나오려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노암: (대기구역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거기 조용히 안 해? (마르하가 갑자기 노암의 팔을 잡는다.) 어 깜짝이야! 뭐야 아줌마. 왜 그래?

마르하: 저... 앰블런스 줘...

노암: 아씨... (사라와 레일라를 가리키며) 거기 두 명! 와서 이 사람 좀 부축해 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여기 앰블런스 한 대 부탁드립니다. 임신부 때문에 긴급상황입니다. (전화를 끊고) 앰블런스 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왜 하필 내가 일할 때야. (퇴장하며) 다음!

사라와 레일라가 마르하를 부축해 기대 앉힌다.

알리아: 새댁, 아이고 수고 했어. 자 숨 쉬어 봐. 후~ 후~ 후~

레일라: (알리아를 따라서) 후~ 후~ 후~

마흐무드: 누나, 내가 뭐 할 거 없어?

레일라: 뜨거운 물이랑. 또 뭐지. 그래 담요. 담요 좀 구해 봐.

사라: 학생 옷 좀 벗어주세요!

마흐무드가 옷을 벗어다 놓고 퇴장한다.

사라: (마르하의 손을 잡으며) 제 손 잡고 편히 기대세요.

알리아: 으응? 아니 양수가 터졌나벼! 안 되겠어, 내가 받아야 굿어! 레 일라야 니 옷 좀 벗어다 여기 깔아라.

알리아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르하 입에 물리고 마르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옮긴다. 마르하는 계속 신음한다.

알리아: 새댁 힘 쥐 봐봐. 웁지. 웁지. 응 웁지. 나온다. 머리가 보여! 조금 만 더 힘 쥐 봐. 응, 잘 하고 있어, 응, 나온다, (암전되고) 나왔다 나왔어!

II. 인물 상세 설명

(등장인물 스스로가 말하는 자신의 이야기)

1) 사라 유세프

지금 제자들 나이 즈음에 1차 인티파다를 겪었다. 희망과 기대, 슬픔과 불안이 공존하던 시대에 이십대를 보냈고, 그 시절 집안 남자들은 모두 죽거나 잡혀 갔다. 투사가 될 수는 없었다. 대신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해 영어 교사가 되었다. 일에 몰두하며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결혼 시기를 놓쳤다. 시집을 못 가 어찌냐고 어머니가 가끔 한탄하는 것만 빼면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비혼 여성이다. 학업을 중시하는 집안 분위기 덕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부채감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팔레스타인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다. 수업 교재 지문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고심해 고른다. 지문이 어렵다며 아이들은 종종 징징대지만, 함께 독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엿보고 의견을 끌어내려고 한다. 바로 이 아이들에게 팔레스타인의 희망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셀은 과묵하지만 가끔 지혜가 묻어나오는 말들을 던져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아이였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싶다가에 내가 소로우의 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 일이 있기 하루 전 날 하룻길에서 이번 주에도 집회에 나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말로는 만류하면서도 내심 대견하다고 느꼈다. 늘 있는 집회이기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군의 진압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마냥 편치만은 않았다. 그 때 내가 더 말렸어야 했는데... 내 탓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가슴이 찢어진다. 왜 하필 내 제자인가? 왜 그 아이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고,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 왜 삶을 꽃피울 기회도 없이 군인의 총에 죽어야 했을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도 어제의 슬픔에 잠겨 오늘을 보낼 수는 없다. 남은 아이들이 있으니 다시 힘을 내서 내 앞의 이 아이들을 이끌어야 한다. 내가 기댈 곳은 이 아이들의 미래뿐이다. 이 아이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버텨야 한다. 아이들이 기댈 수 있게, 이렇게 소중한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 끝까지 오랫동안 빛날 수 있게 말이다. 무너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오늘도 수업을 시작한다.

2) 아흐메드 아신

16살의 중학생 소년. 어느 날부터가 자연스럽게 집회에 나가 이스라엘 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집에서는 착한 아들, 학교에서는 조용한 학생이지만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집회에 간다. 신을 믿지만 신앙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보다 조직 운동에 관심이 많다. 최근 이슬람주의 조직에 입단한 친구도 있는데 나와 지향점이 맞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집에서 이런 고민을 내비치지는 않는다. 다섯 살 위의 마르하 누나와는 말이 잘 통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누나가 결혼한 뒤로는 누나도 부모님 같은 존재가 되어서 마음을 터놓을 수 없게 되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숨기는 게 늘어간다. 집에 있을 때는 대개 내 방에 틀어박혀 혼자 음악을 듣는다. 초등학교 때 팔레스타인 힙합그룹 '데미'의 음악을 듣고 감명을 받아 지금까지 힙합음악을 즐겨듣는다. 우탱 클랜, 투팍 같은 미국 래퍼들을 좋아하고, 요즘에는 미국 언더그라운드 랩을 찾아 들으며 영어 공부도 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시위에도 반 친구들과 함께 나갔다. 도중에 대열에서 빠져 나와 우리끼리 노닥거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쫓아오기에 서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게 함께 한 마지막이었다. 나는 금세 붙잡혀

그 자리에서 마구 맞았는데, 사흘 뒤 풀려나는 날이 돼서야 그 장면이 기자 카메라에 찍혀 뉴스에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친구 아셀이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는 비보도 함께 들었다. 취조실에 아랍어 잘 하는 군인이 들어와 나보고 어떤 테러 조직에 속해 있냐고 물었는데 그제 다 아셀에게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개수작이었나 보다. 주말 내내 영문도 모른 채 두들겨 맞고 취조 당하는 동안에도 내 친구가 죽은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다.

월요일 오전에 나는 이스라엘 군에서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로 이관되었다.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지난 사흘간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말이 유리문을 나서면 기자들이 와 있을 테니 당황하지 말고 질문에 답해 주란다. 기자들이 하는 질문도 아까 받은 조사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일정이 끝나질 않았다. 집에 가고 싶어서 나는 답하다 말고 인터뷰를 끝내버렸다. 그러나 집에 간다고 끝이 아니었다. 나보다 더 놀랐을 엄마를 안심시켜야 했다. 분명 나를 붙잡고 우실 것이다. 내 예상이 맞았다. 이제 내 방으로 가고 싶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혼자 쉬고 싶다. 방에 들어가자 마음 속 회오리가 끝내 터져 나왔다.

3) 마르하 아신

어렸을 때 우리집은 큰 올리브 농장을 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했다. 그때 나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이파에 가고 싶으면 당장 갈 수 있을 줄 알았고, TV에 똑똑한 전문가나 예쁜 배우가 나오면 그렇게 된 내 모습을 금세 꿈꾸곤 했다.

어느 날부터가 올리브 나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벌금을 내야 한다며

아버지가 베어 팔기도 했고 집회 때문에 뽑혀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리고 14살 때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잘 피우지 않던 물담배를 피고 있었다. 누군가 집으로 날라 온 계고장을 보여 주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도로를 내야 하니 올리브 농장의 절반을 비우라는 내용임은 대번에 알 수 있었다. 나의 오랜 놀이터, 아니 내 삶의 터전인 올리브 농장. 비가 온 다음 날 올리브 나무들 사이를 거닐 때의 냄새. 혼자 있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 기대했던 나무. 나무마다 이름을 붙여주며 놀던 그곳. 농장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집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집회라도 열어야 하나, 도로 공사장에 드러누울까. 그러나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하지 않았다. 북받칠 때면 그저 다섯 살 어린 동생 아흐메드를 붙잡고 “이스라엘 때문이야”라는 말만 반복했다.

침울 속에 도로가 완공되었다. 장벽이 추가되면서 남은 올리브 나무들도 뽑혀나갔다. 가세가 기울었다. 나는 점령과 관계없이 나만의 꿈을 꾸다는 것이 위선이고 어불성설임을 깨달았다. 팔레스타인 해방은 이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청년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여자, 그것도 가난한 집안의 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나는 언저리에서 다른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지지할 따름이었다. 다만 언제부턴가 열 살을 갓 넘긴 아흐메드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내가 괜한 바람을 불어 넣었나 걱정도 들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동생이 존경스러웠다. 나에게도 아흐메드와 같은 용기와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조금 달랐을까?

나는 조용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방의 작은 의류공장에 취직했다. 미성을 하찮은 일로 볼 사람도 있겠지만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자

부심을 처음으로 느꼈다.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 아빤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다른 남자와 달리 진솔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해방운동에 제법 관심이 많았다. 나는 잊고 지내던 나의 고민들을 아빤과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했다. 그와 함께 아이를 낳고 이 땅에서 반듯한 팔레스타인 사람으로 키울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결된 나의 권리이고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그토록 고대하던 임신 소식이 있는 후로 아빤은 서서히 변해 갔다. 정착촌에 취직을 하더니 밤낮없이 휴일도 없이 일한다. 눈 맞춤 겨를조차 없다. 예전의 상냥하던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요즘 아빤과 이야기를 할 때면 벽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것 같다. 혹시 새로운 여자라도 생긴 걸까? 이스라엘 여자일까?

4) 아빤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2년 전 마르하와 결혼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내 자식은 나처럼 가난하고 불안하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봉급을 많이 준다는 정착촌 공사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숙물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생각보다 일도 고되고 체크포인트에서 대기하느라 출퇴근만으로도 일인데, 이런 고생은 몰라주고 정착촌 일을 탐탁지 않아 하는 아내가 서운하다. 이 와중에 처남은 집회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군에 끌려가 마스크를 탔다. 처남도 처남이지만 집회 여파로 검문이 더 강화될까봐 걱정이다. 안 그래도 요즘 새벽 2시에는 집을 나서야 지각을 면한다. 나도 점령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어린 처남이나 집에만 있는 아내는 현실을 너무 모른

다. 당분간 젊은 팔레스타인 남자들은 검문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곧 노동허가증 갱신도 해야 하는데 처남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어쩌지.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걸 아내에게 들키지는 말아야겠다. 아내가 처남 걱정을 많이 했으니.

우리 집안에서 이런 일은 나의 세대로 끝나길 바란다. 나는 아버지가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걸 보며 자랐다. 어릴 때는 그게 자랑스러웠는데 돌이켜 보면 그런 아버지 고집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다. 큰 형도 아버지와 똑 같았다. 내 아이는 아버지, 형, 처남, 그리고 나와도 달라야 한다. 내가 못 간 대학에도 보낼 것이다. 외국에 있는 대학이라면 더 좋겠다.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마르하도 언젠가는 이런 나를 이해해 주겠지.

정착촌 일이란 것이 동네 사람들 눈치만 건디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체크포인트에서 멍하니 기다리다 보면 가끔 내가 출근중인지 퇴근중인지 헷갈릴 정도다. 날이 슬슬 추워지니 더 힘들어진다.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

5) 알리아 다르위시

올해 77살이다. 1937년에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된 하이파에서 태어났다. 슬하에 아들 셋, 딸 둘을 낳았으나 큰 아들이 1987년 1차 인티파다 때 죽었고 셋째 아들은 감옥에 있다가 2011년 수감자 교환 때 풀려났다. 셋째 아들이 감옥에 가있는 동안 아들네 식솔들을 보살피기 위해 우리 집으로 데려왔고, 아들이 풀려난 지금도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태어난 이래 하이파에서 쭉 살다가 나크바(팔레스타인 말로 '대재앙'.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지칭함) 때 라말라로 이주했다. 당시 열 살이었다.

다행히 부모님과 다른 일곱 형제 모두 목숨을 건사해 라말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전 재산을 잃었고 난민촌에서 어렵게 자랐다. 스무 살이 되면서 하이파에서 함께 피난온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다. 남편 아담은 이스라엘에서 일하며 자본금을 모아 라말라 시내에 작은 서점을 차렸다. 이후 둘이 살뜰히 모은 돈으로 집 한 채를 사게 되면서 난민촌을 빠져 나왔다.

1967년 점령 때는 29살이었다. 그때 남편이 다른 청년들과 전쟁 반대 활동을 조직하다 표적이 되어 이스라엘 군에 살해되었다. 1987년 1차 인티파다 때는 49살이었다. 그땐 나도 거리로 뛰어나와 저항에 함께했다. 군인들 앞에서 시위를 했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집에 숨겨주고 치료도 해 줬다. 그때 큰 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손자와 집 앞 거리를 달려 지나다가 이스라엘 군이 발포한 총에 맞았다. 몇 년 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 협정을 시작했다. 남편과 아들까지 잃었어도 나는 하이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희망은 좌절되었다. 팔레스타인이 무슨 자치정부를 세운다는데 웬일인지 자유롭게 다니던 곳마저 갈 수 없게 되었다. 아부디스로 시집 간 딸이랑은 고립장벽이 세워진 2006년 후로 벌써 10년 가까이 만나질 못하고 있다.

요즘은 무릎에 류마티스 질환이 생겨 한 달에 한 번씩 예루살렘 병원에 다닌다. 딸과 손녀들은 예루살렘 출입 허가증을 못 받으니 병원에는 나 혼자 노구를 이끌고 가야 한다. 손녀들이 버스 정류소까지는 함께 가주지만 예루살렘에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 최근 몸이 안 좋아지면서 그간 해 온 활동들을 못하고 있다. 셋째 아들이 감옥에 있는 동안 수감자 가족들과 단체를 꾸렸는데 아들이 풀려난 후에도 집회엔 계속 나갔다. 요 몇 달간 그마저도 못 갔다.

눈이 점점 침침해 오지만 알자지라 뉴스는 챙겨본다. 꾸란도 때마다 읽지만 다른 책은 잘 안 읽게 된다.

6) 레일라 칼리드

7남매 중 둘째 딸이다. 동네에서 똑똑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하다. 어렸을 때 또래보다 글자를 빨리 익히고 꾸란도 줄줄 읽어서 동네 어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다. 원래 꿈은 천체물리학자. 신이 만든 우주를 연구하면 신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려면 나블루스나 라말라로 대학을 가야 했고, 그 선택을 할 자신이 없었다. 자취를 하면 동네에서 여자에게 대도시에서 자취를 한다고 안 좋은 소문을 듣기 쉽고, 통학을 하자니 왕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알바를 할 시간이 없다. 결국 꿈을 접고 장학금이 많은 컴퓨터공학을 선택했고, 지금은 장학금을 받으며 집에서 가까운 오픈 유니버시티(한국의 방통대와 비슷함)를 다니고 있다. 장래희망은 교수. 권위 있는 연구자가 되어 국제회의에도 참석하고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꿈이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팔레스타인 사람은 미개한 테러리스트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나처럼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시골 여자가 단지 공부만 잘 한다고 교수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17살 때 차라리 아무 꿈도 꿀 수 없게 멍청한 머리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에 잠시 방황하기도 했다. 그때는 공부도 싫고 가난한 부모님 얼굴 보는 것도 싫어서 지하실 창고에 틀어박혀 혼자 일기를 쓰거나 소설책을 읽곤 했다. 그 시기를 빠져나온 건 다시 기도를 하면서 부터였다. 건성으

로 기도하던 평소와 달리 어느 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더니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경험을 했다. 그제야 신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신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아랍인들은 매일 말로만 알라야발을 외칠 뿐이다. 혹시 지금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신앙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닐까?

아직도 이따금씩 의구심이 찾아온다. 이렇게 밤새 공부한다고 해서 부패한 팔레스타인에서 아무 뺨 없는 내게 좋은 대학원 입학이나 해외 장학금 기회가 주어지기는 할까? 최소한 좋은 직장이라도 얻고 싶는데 시골출신에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럴 때마다 나는 신에게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른다.

요즘은 정말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공부해도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인데 매일 몇 시간씩 과외 알바에 동생들도 돌봐야하고 집안일도 해야 해서 늘 시간에 쫓긴다. 부모님은 가난하다.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서 본 동화책 전집을 사달라고 했다가 밤에 우연히 부모님이 돈 걱정하는 소리를 듣고는 가난이 무언지 이해하게 됐다. 그 후로 모든 일을 알아서 해 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초등학교들 과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지금도 그룹과외 알바를 2개 하면서 내 책값과 용돈 그리고 재수하는 남동생 책값을 벌고 있다. 요즘 동네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부서지는 집을 보며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얼마 전 친구의 선물로 읽기 시작한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이 떠오르기도 하고, 세계적인 연구자가 되는 것 말고 이 지긋지긋한 팔레스타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하다가도 당장 일상의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요즘 최대 골칫거리는 남동생 마흐무드. 꽤 성실한 아이였는데 작년부터 꿈도 미래도 없는 아이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시간이나 죽이는 흔한 팔레스타인 남자가 될까봐 걱정된다. 동생을 도와주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7) 마흐무드 칼리드

어렸을 때는 우리 동네가 그렇게 커 보였다. 친구들과 뛰어놀던 시장골목, 그 너머 모스크에서 보낸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여러 물감 색을 섞어 세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황홀했다. 싸구려라곤 해도 새 물감이 생기면 늘 가슴이 설렘다. 누나도 내 그림을 좋아했다. 바쁜 부모님과 달리 누나는 내가 무엇을 그리는 꼼꼼히 살펴보고 칭찬해 주었다. 자연스럽게 누나 얼굴을 자주 그렸다. 누나가 일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얼굴, 공부에 집중한 얼굴, 올리브 딸 때의 얼굴, 잠에 빠진 얼굴. 그 중에서도 웃는 얼굴을 그리는 게 가장 좋았다. 누나는 웃을 때 가장 예쁘니까.

누나는 내가 아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다. 학교 성적도 줄곧 좋았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 집에서 큰 인물 나겠다고들 했다. 가끔 질투가 났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컸다. 엄마가 자주 아프셨기에 누나가 엄마 역할을 한 날도 많았다. 엄마같이 잔소리를 할 때면 짜증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나는 누나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임을 언제나 믿고 있었다.

고등학교가 되자 우리 동네가 사실은 장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비좁은 화분 안에서 풀이 말라죽듯 우리

집은 계속 가난해져 갔다. 점차 흠바닥에, 장벽에 그림을 그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되었다. 갑갑해지기 시작했다. 장벽 너머의 세상을 그리고 싶었다. 따뜻하다는 하이파의 파도를 그리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과 교감하고 싶었다. 그 때 미대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욕망은 견잡을 수 없었다. 이 장벽 너머 큰 도시로 가서 내 그림을 보여주고 다른 이들의 작품도 보고 싶어졌다. 결심이 섰을 때 누나에게 이야기했다. 미대에 가고 싶다고. 누나는 생각해 보겠다며 우물쭈물 자리를 피했고 며칠이 지나서야 나를 불러 앉혔다. 물감 살 형편도 안 된다며 미대는 포기하라고 했다.

입학금만 도와주면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그냥 가까운 대학에 진학해 취업 준비나 하란다. 너무 실망스러웠고 화가 났다. 누나가 왜 이렇게 돌변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 정신이 멎었다. 누나가 응원한다는 마흐무드는 결국 이 집 맏아들로서의 마흐무드였던 것인가? 적당히 졸업하고 취업해 적당한 여자와 결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남동생? 지금껏 누나의 따뜻한 행동들이 가증스럽게 느껴진다. 위선적이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잘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 왔구나. 이런 내가 이제는 창피하구나. 그림 그리는 동생은 집에 불과하구나. 누나가 밉다. 내 행복을 바라기나 하는 걸까? 누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다. 내 존재 자체가 누나에게 상처가 됐으면 좋겠다. 망가져버리고 싶다.

그렇게 대학입시를 망쳤다. 채수하라는 누나의 부탁에 다시 입시공부를 시작하긴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화만 커지고 공부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나 말 듣는답시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 뭐하나. 그런 생각에 매일 길거리에서 담배나 태우고 지나가는 여자애들한테 수작이나 부리면서 살고 있다. 그냥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8) 노암

20살의 이스라엘 남성. 형편이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유대인 집안에서 자랐고 현재 군복무 중이다. 가끔 부모님이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시지만 그런 것보다 유럽축구리그에 더 관심이 많다. 군복무는 지겹지만 언젠가 끝날 일이다. 다행히도 얼마 전 같이 근무하게 된 아일레트가 마음에 들어 견딜 맛이 난다. 지금껏 연애는 뒷전이고 운동만 한 게 이제 와 후회된다. 여자 문제엔 완전 숙맥이다. 그래도 어엿한 성인으로서 나만의 연애사를 시작할 적기이므로 과감히 대신해 볼 생각이다. 얼마 전 아일레트가 레이디가가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신이 날 도우시려는지 때마침 레이디가가가 이스라엘 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얼른 표 2장을 예매해 뒀다. 갑자기 단둘이 공연을 보러 가는 건 어색할지 몰라서 공연 날까지 친해지기 위한 첫걸음으로 오늘 근무 후 함께 들를 괜찮은 식당도 알아봐 두었다. 만약 식사 중에 말이 잘 통하면 2차로 갈 맥주집도 알아 뒀다. 준비를 잘 한 것 같아 뿌듯하고 긴장도 된다. 근무지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볍지만 심장은 쿵쿵 뒹다. 멘트는 실수 없이 물 흐르듯 하는 게 생명이다. 미리 중얼거리며 연습해 본다. 공연을 다 본 후 어떻게 애프터를 신청할지는 아직 못 정했으므로 계속 머리는 굴리면서. 근무가 얼른 끝나서 아일레트와 식당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좋겠다. 오늘 검문은 무조건 '대충대충' '빨리빨리'다!

9) 아일레트

이스라엘 태생의 19살 유대인 여성. 현재 군복무 중이다. 부모님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이스라엘 키부츠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수입품 상점을 운

III. 조명

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몇몇 동네 어른들과 2년 전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두 분 다 바쁘시다. 부모님은 사회는 하나의 큰 가족과 같으며 사회 공동체성을 유독 강조하신다. 신앙심도 투철하시다. 나는 두 분 만큼 신앙심과 애국심이 깊지는 않다. 이스라엘 정부가 설파하는 통합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들도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실 누구도 내게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가면 좋은 책 많이 읽고 토론도 많이 하면서 내 관점은 스스로 만들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의견이 없지만, 입대 후 체크포인트에 배치되면서 가까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관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후 장차 기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관찰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다. 이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면 이런저런 교수 추천도 기대할 만하다. 미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니 같이 근무하는 노암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모양이다. 일하다 보면 내 뒤통수에 꽂힌 그의 시선이 느껴지고 틈만 나면 말을 걸려든다. 귀엽기는 한데 아직 뚜렷한 삶의 계획도 없는 어린애 같다. 일단은 피해 다니고 있다.

Scene	특이사항	OFF	ON
0. 시작 전. 관객 입장			
- 안내 등장			- B 40% ↑ - 객석 등 Full ↑ - 중 W 서서히 ↑
- 안내 퇴장	- B 만 켜져 있음	- 중 W 서서히 ↓	
1. ★ 교실 안. 사라 등장 (학생들도 뒤에서 무대로 밀어붙이며 같이 등장)	- 학생들 지나가면 객석 등도 OFF - TOP 중, 중 W 미리 켜서 사라가 자리 찾아갈 수 있게 하기.	- B ↓ - 객석 등 ↓	- TOP 중 Full ↑ - 중 W 50% ↑
- 대사 "수업 시작 하지" - 사라 퇴장	- TOP 중, 중 W 사라가 나가면서 끼우고, ab 같이 켜. - ab 켜져 있는 동안 아흐메드 인터뷰 선 준비	- TOP 중 Full ↓ - 중 W 50% ↓	- ab 같이 ↑ (a 강조)
2. 아흐메드 등장 - 인터뷰 현장	- TOP 중 미리 켜워서 아흐메드가 자리 찾아 갈 수 있게. - 플래시 타이밍주의	- ab ↓	- TOP 중 Full ↑ - 전체 W 플래시 ↑ ↑ (서터 소리와 함께)
- ★ 아흐메드 인터뷰 끝내고 짐으로 감	- 아흐메드 원에서 나가면 바로 꺼주고 실내용 TOP 중, 거리 켜다.	- TOP 중 ↓	- 중 W ↑, 거리 등 ↑ (집안 분위기)
- 아흐메드 거실에서 끝났으므로 이동	- TOP 중 미리 켜워서 아흐메드가 자리 찾아 갈 수 있게.	- 중 W ↓, 거리 등 ↓ (집안 분위기)	- TOP 중 ↑ (클방 분위기)
- 시진 진화 받으며 등장	- 시진이 끝방 자리에 들어와서 진화 받음		
3. 마르히의 집. 아쌈과의 갈등 상황 - 아쌈이 들어온다.	- 유일한 압전 상황, - 뒤이어 약 4분짜리 영상 촬영	- TOP 중 ↓ (전체 W 켜지면 끈다.) - 중 W ↓, 거리 등 ↓ (집안 분위기)	- 중 W ↑, 거리 등 ↑ (집안 분위기)
4. 가족파괴 현장. 물건들 움직이고 들어간다.	- A,B ▶ ab 순서대로 빠르게 켜다. - 등장에 맞춰서 야외분위기 켜다.		- A,B Full ↑ - ab ↑ (a 강조, 폐허가 된 야외 느낌) - 전체 W ↑, 거리 ↑ (야외분위기)
- 알리아 등장			

Scene	특이사항	OFF	ON
- 자밀라 등장 후 퇴장	- A,B Full - ab - 전체 W, 거리 등 켜져 있음		
- 드레스 레퍼토리 때 TOP 중 켜서 짐 종료.	- 드레스 레퍼토리 때 TOP 중 켜서 짐 종료.		- TOP 중 ↑
- ★ 레일라 대사 다 한 후 알리아와 함께 일어나 퇴장 - 다음 씬은 레일라 짐.	- TOP 중 ↓ ▶ 전체 W ↓ ▶ 거리 ↓ ▶ A ↓ ▶ 상 W ↓	- TOP 중 ↓ - 전체 W ↓ - 거리 등 ↓ - A ↓ - 상 W ↓	- 상 W ↑ (알리아 나가는 방향에 미리 켜놓았다가 TOP 중, 전체 W, 거리, A 내릴 때 자연스럽게 같이 내림)
5. ★ 레일라 짐. 레일라와 마흐무드 갈등. - 맨스 음악 나오고 미흐무드 등장 후 레일라 등장	- TOP 상 ↑ - B ↓ - 중 W ↑ - TOP 하 ↓	- B ↓ (렌스음악 나오고 마흐무드 등장 할 때 TOP 상, 중 W 켜면 내림) - TOP 상 ↑ (마흐무드 등장하면 먼저 켜 놓음) - 중 W ↑, TOP 하 ↓	
- 마흐무드 말다툼 후 퇴장	- 마흐무드 나가는 순서대로 꺼주고 레일라 조명	- TOP 상 ↓ - 중 W ↓	
- 레일라 음악과 함께 흐느낀.	- 불빛 부드럽게!!	- TOP 하 ↓ (서서히)	- B ↑ (서서히) - TOP 하 ↑, 하 W ↑ - a ↓
6. 체크포인트. 노암과 아일메트 대화	- 대화하는 두 명에게 집중 효과	- B ↓	
- 아일메트 자리를 떠나 반대편에 앉는다. - 노암의 '웃통까!' 대사에서 한 번에 밝아지게.	- 체크포인트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모습. 바깥 모습 효과	- TOP 하 ↓ - 하 W ↓	- 전체 W Full ↑ - A,B Full ↑ - ab ↑ (a 강조)
- 미르와 출산 진, 노암 퇴장	- 출산 상황의 긴박함을 집중해주는 효과 - TOP 하, 하 W ↑	- W ↓ - A,B ↓ - ab ↓	- TOP 하 ↑ - 하 W ↑
- ★ 출산!	- 출산 진부터 서서히 조명 내려주면서 암진 속에서 출산.	- TOP 하 ↓ - 하 W ↓	
7. 커튼콜	- 아예 환하게		- 전체 W ↑, 보강 W ↑
- 커튼콜 끝나면	- 배우 나갈 수 있게 B 조명.	- 전체 W ↓, 보강 W ↓	- B ↑
- 배우 다 나가면	- 관객 자리 찾아 나갈 수 있게		- 관객 등 ↑